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취업성공을 위한 소프트 스킬

취업하기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무엇일까 생각해볼자는 것이다.

가 어렵다. A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세부 실무에 대한 강도의 틀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B는 학과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성격이 활발하고 열정과 자신감이 있으며 리더십과 발표력이 뛰어나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글이나 말로 표현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실력을 알 수 있겠는가?

지식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속 보완해 가게 된다.

공한 사람들은 강한 소프트 스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대개 하드 스킬, 즉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하드 스킬은 인터뷰할 기회를 주지만, 소프트 스킬은 취업자리를 준다고 한다.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뒀던 대학에서도 최근에는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고 있다.

일에 대한 개인의 자세, 기질, 성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 말 또는 글로 하는 발표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팀워크 능력 등이 이른바 소프트 스킬에 속한다.

이러한 소프트 스킬은 일부 타고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시간을 갖고 매일매일 훈련하면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적인 역량과 기질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의 경쟁력, 즉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에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매진하는 사람과 주어진 일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마음이 열린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더 나은 결론에 이르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시설

광주시 올해 외자유치 전국 꼴찌라니

올들어 전국광역시자치단체 가운데 외자유치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누리당 여성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광주지역의 외국인 투자액은 700만 달러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전남은 1억900만 달러를 유치해 9번째 순위였다.

이에 반해 국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61억5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 수준인 65억5000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연말이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이 다.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국인 직접투자액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의 투자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고, 시의 투자 전략도 과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으로 내실있는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

전남대 일부 교수들 뇌물에 성접대까지

전남대 교수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리과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 전임교원 징계대상은 2009년 5명, 2010년 8명, 2011년 6명 등 총 19명이었다.

전남대 교수들의 비리 행위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뇌물수수하는 물론 논문대필이나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들이다.

을 저지르지도 했다. 심지어 제자 성희롱과 전공의들에게 심미제 접대를 요구한 파렴치한 행위도 일삼았다.

실제, A교수는 논문심사와 관련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자를 성희롱한 B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한 C교수는 징역 3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모든 시민의 모범이 되어 할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한 면에서 비리 교수들에 대한 심미제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無等鼓

1969년 미국 뉴욕주립대 제임스 해밀턴 교수의 고든 메슬러 교수가 거세와 인간 수명의 연관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기 힘을 정도로 장수한 셈이다. 그는 3대조를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종 2쯤까지 올라 부귀영화로 누렸다.

1900년대 유럽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세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관에 등장하는데 최장수는 109세였고 100세를 넘긴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조신시대 환관 기경현은 101세까지 살았다. 현종 12년인 1670년에 태어나 숙종·경종을 거쳐 영조 48년인 1771년에 세상을 떠났다.

고 있다. 환관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양반보다 평균 14~19년을 더 살았다는 것으로, 남성호르몬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Kwangju)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

중고칼럼



일담

물에는 연꽃을 심어 천연연서 자태를 야하고, 동산에는 매화로 해맑은 품격을 숭상하며, 국화는 절개를 취해 서리에도 끄떡 않는 자태를 틀어본다.

학은 달빛에 울고 거문고는 바람에 운다. 백운동으로 유거(幽居)했던 이담로(1627~?)가 노래한 풍경이다.

그런 백운동에 깃들여 살았던 유학자는 속세의 욕망보다는 자신의 이상향을 꿈꿨다.

기고



박봉순

처음 F1대회를 한국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2번의 F1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금에 와서는 결코 유치가 잘못되었다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해 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F1대회로 얻은 큰 수확이다. 대회기간 동안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회장을 찾으면서 전남 곳곳을 찾고 발돋움까지 식당과 거리는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백운동 별서

추위와 바람이 매서울수록 웅골지게 피어나는 매화향처럼 고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은거인의 애뜻함이 녹아있다.

백운동 별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쇄원, 명옥헌 처럼 몇 남지 않은 호남 전통 원림을 간직한 별서다.

학문과 글 솜씨로 이름이 높았던 이담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글을 남기고 사후에 좌승지로 추증된다.

1812년 음력 9월에 다산과 초의는 백운동 별서로 소풍을 간다. 하룻밤 잤다는 말도 있고 며칠 밤을 놀면서 보냈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 노인네가 다산초당에 돌아와서도 백운동을 잊지 못하고 꿈결에 뒤적이며 후유증을 앓았다는 사실이다.

다산과 초의 두 스승은 백운동별서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이 그토록 당대 두 지식인들의 가슴을 울렸을까?

올해 백운동 별서를 지켰던 이담로의 11대손 이효천 응이 돌아갔다.

대부분 세계 각 나라의 국제경기 관람객의

노부부 두분이 닭을 키우며 별서를 지키고 사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젠 그 모습조차 볼 수 없다.

백운동별서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여진 곳이다.

지역민들의 사랑과 동참 없이는 대회는 성공할 수 없다.

<백산사 총무스님>

F1 성공 개최, 지역주민에 달렸다

2011년 F1대회 때 숙박시설의 이용이 2만2000실에 이르고 먹고 자고 하는데에 직접 지출했던 금액은 385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2번의 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올해 대회를 포함해 남은 5년간의 F1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다.

으로 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대부분 세계 각 나라의 국제경기 관람객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